

경제

하반기 보증비율 95%→85%로 축소편

1만7천여 지역중소 '자금난' 가중

가산보증료 부과 우려 속 은행권도 대출 기피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확보의 원천인 보증지원 규모를 크게 줄일 방침이어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출입이 1만7천여개에 달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 기금 등 보증지원 의존도가 높아 자금상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은행권 대출문턱도 높아지며 신규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예상되고 때문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증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만기연장할 때 보증비율이 85%를 초과하거나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보증료가 부과되는 등 정부의 중기 보증지원 규모가 축소된다.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을 95%로 높은 중소기업

보증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7월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증비율을 85% 이하로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0.2~0.4%의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요율은 1.2% 수준인데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보증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증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0.1~0.2%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비율 85% 이하라도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안 좋은 기업과 최근 부실 요인이 발생한 기업은 보증금액을 10% 정도 줄이지 않으면 0.2%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1만7천여개에 달하는 광주·전남지역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증금액을 줄이는 과정에서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이하 기보호남본부)와 기술보증기금 광주기술력센터에서 보증자금을 조달한 광주·전남 등 호남권 기업은 각각 2만3천개(광주·전남 1만4천950개)와 2천215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의 보증잔액은 3조7천500억원 규모다.

전국적으로 가산보증금 납부 대상인 업체 비율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지역기업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부 보증지원이 감소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기술보증기금 호남본부의 올 상반기 보증지원

목표액은 7천300억원에 달하지만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실제 올들어 보증지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45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1조9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역 중소기업체의 한 간부는 "타 지역에 비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광주·전남 지역 등의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증규모를 축소하면 돈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관계자는 "보증규모 축소는 15억원 이상 가액 장기 대출, 자생력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농협 인재육성 장학증서 수여

29일 서울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2010학년도 농협 인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4년 후 자신의 미래를 담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있다. 농협문화복지재단(이사장 최원병)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장학학생 81명에게 8억9천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기아차 직무평가 '사표 종용' 논란

7명 징계위 회부...노조 반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아자동차가 직무능력 미달을 이유로 일부 사원들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단행할 방침이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6일 연봉제 사원 7명에게 다음달 2일과 6일 징계위원회를 참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평가결과 직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측은 "이달 초부터 광주공장 외 과장급 이상 연봉제 사원 3명과 관

내 사원 10명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스스로 사표를 쓰지 않으면 인사 조치 하겠다고 종용해 광주공장 직원 1명과 판매 사원 1명이 각각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직원들에게 직무능력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직무능력 평가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징계위 출석요구를 받은 직원 A씨의 경우 사무관리직 노조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운동 탄압 의혹도 사고 있다.

광주지회 관계자는 "징계 대상 전부가 광주에 근무하는 사원들이다"

며 "광주지회가 쏘울 증산 등 광주공장의 50만대 재편 사업에 적극 협조했는데 돌아온 것은 징계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직무능력향상시스템을 통해 1년에 두 차례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은 노력과 열의 부족으로 직무에 대한 성취 정도가 미약할뿐 아니라 협력적이고 능률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사표를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오늘 주총

박세창 그룹 상무 등기이사 선임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30일 오전 9시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주주총회를 연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주총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금호그룹 전략경영본부

상무와 기옥 금호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신임 등기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로는 박찬성 이크레더블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또 최근 워크아웃 중 임원 임금 인상 논란을 빚은 '이사의 보수 총액 한

도 18억원 유지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9일 제19차 임원회 본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진전없이 협상을 마쳤다.

한편 '금호타이어 정리하고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광주전남대책위'는 30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삼우지구 NGO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금호타이어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용·산재 보험료

내일까지 납부해야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2009년도 확정보험료와 2010년도 개산보험료를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는 지난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를 곱해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올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에 보험료를 곱해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문의는 국번없이 1588-007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ble with financial data: 코스피지수 1,691.99 (-5.73), 코스닥지수 518.06 (-6.60), 금리 (국고채 3년) 3.92% (+0.08), 원·달러 환율 1,135.50원 (-3.2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기아차 시가총액 10조 돌파

상장 이래 처음

기아차 시가총액이 상장 이래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차는 지난 주말보다 650원(2.58%) 오른 2만5천850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10조844억원이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아차 시가총액은 1999년 유상증자 성공을 통해 2조원대도 도약한 이후 2006년 1월에 9조7천억원까지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로 시가총액이 2조원대 초반까지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외 시장에서 91만대를 판매한 '뉴 스포티지'에 이어 최근 스포티지를 잇따라 출시, 지난 23일에는 4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가를 2만4천원선까지 끌어올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은 "최근 출시된 스포티지, 봉고III 등 '신차효과'를 바탕으로 경영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SK에너지에 이어 19위로 올라섰다.

/윤영기기자 penfoot@

대학생 '에코 캠프'

기아차 40명 모집

기아자동차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대학생 봉사·환경활동 프로그램인 '에코 다이내믹스 워크캠프(Eco-Dynamics Work Camp)' 참가자 40명을 모집한다.

이 캠프는 기아차 브랜드 홍보와 봉사활동, 현지 주민과의 문화교류, 환경 보호를 테마로 한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오는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2~4주 동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라오스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된다.

자기소개서와 활동계획서 등 서류신청을 통해 1차 합격자를 뽑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산강 7공구 협상자 3곳 얼마 썼나
케이지·중흥건설 348억
대광건설·대보건설 349억
남해종합·한라건설 350억

다음달 중 착공될 예정인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협상자로 3곳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30일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컨소시엄의 제안액을 심사한 뒤 2주간 조달청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7공구 사업의 총 사업비는 771억3천만원으로, 이중 관급자재 비용 185억5천900만원 등을 제외한 공사비

는 551억3천400만원이다.

지난달 실시된 조달청 입찰 결과 케이지건설·중흥건설이 공사비의 63.3%인 348억9천600만원을 썼으며, 대광건설·대보건설(349억8천200만원), 남해종합건설·한라건설(350억1천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불경기의 여파로 건설업체들이 공사비를 최대한 낮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이들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액수로 공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7공구 사업은 광주시 서구 차평동 광주천 합류지점에서 북구 용전동 용산교까지 14.08km 구간에서 시행되며, 강폭을 넓히는 등 주변을 정비하고, 둔치에 자연경로도 29.44km와 산책로 17.5km를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에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세확장에 따라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Table with recruitment details: 모집분야 (경리, 개발, 아파트, 토지, 실가, 빌딩, 프랜차이즈, 경·공매), 인원, 지원자격, 비고

(유)코리아랜드

대표전화 959-1033, 010-7723-10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483번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k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관리사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토지매매, 건물매매. 위치, 면적, 용도, 평면금액,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토지매매, 건물매매. 위치, 면적, 용도, 평면금액,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k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관리사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